

어려웠던 수능...대학 합격선 3~4점 하락할 듯

서울권 의예 283점·지방권 273점...연세대 경영 277점 '1등급 컷' 국어 화법·작문 87점...수학 확률·통계 92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영·수 주요 과목이 까다롭게 출제돼 주요 대학 합격선이 3~4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 수험생들도 이번 수능이 지난해보다 어렵고 매력적인 오답이 많아 까다로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19일 종로학원은 "이번 수능에서 국어 과목이 어렵게 출제돼 주요 대학의 인문·자연계 합격선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로학원은 정시에서 서울대 경영대학은 국어·수학·탐구 영역 원점수 합산 기준(300점 만점) 합격선이 전년(288점)보다 4점 낮은 284점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세대 경영도 277점, 고

려대 경영 277점으로 전년 대비 합격선이 각각 4점씩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연세대 의예 290점(3점 하락), 성균관대 289점(3점 하락), 고려대 의대 288점(4점 하락) 등 주요대 의예과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합격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의예과 합격선은 서울권 소재가 283점(5점 하락), 수도권 소재 283점(3점 하락), 지방권 273점(2점 하락)으로 전망했다.

대성학원도 서울대 의예 293점(1점 하락), 경영대학 283점(5점 하락)으로 전망했다. 의대의 경우 연세대 291점(2점 하락), 성균관대 290점(2점 하락), 고려대 289점(3점 하락) 등으로 예상

했다.

EBS는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국어 예상 등급컷은 화법과 작문의 경우 1등급 87점, 언어와 매체 85점으로 추정했다.

수학 예상 등급컷은 확률과 통계 1등급 92점, 미적분 84점, 기하 90점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수험생 10명 중 8명은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EBS는 EBS 고교강의 사이트를 통해 수능 수험생 체감난이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자 2764명(국·영·수·한국사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해 47.4%가 '매우 어려웠다'고 응답했으며 '약간 어려웠다'는 38.5%였다.

영역 별로는 국어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64.5%, '약간 어려웠다'가 23.2%로 나타났다.

수학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32.1%, '약간 어려웠다'가 31.6%였다.

영어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38.2%, '약간 어려웠다'가 33.5%로 집계됐다.

광주 수험생들에게도 이번 수능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창욱 광주진학부장협의회장은 "현재 수험생들의 가채점 결과를 수학·분석하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광주 수험생들도 수능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빠졌으나 이번 수능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학도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고, 주요 과목에서 지문배치가 까다로웠고 매력적인 오답이 많아 수험생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도박예방치유원 광주·전남센터 동신대, 내년부터 3년간 위탁

동신대학교는 19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광주·전남센터의 운영 위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이다.

이 센터는 도박문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립된 지역 내 유일한 전문기관이다.

동신대는 센터 위탁을 맡아 도박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교육·예방·홍보,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도박중독 치유와 재활 교육 상담 프로그램 운영, 도박중독자 및 가족 사례 관리,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을 한다.

대학 내 청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을 운영하며 도박문제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와 연계한 집단 프로그램 및 자문 등도 지원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학생들 손길에...노후된 골목, 정원이 됐다

화정동 백제아파트 골목서 전남대 조경학과 '가든 어택' 카페·요가 강좌·국악 공연...주민들 "신기하고 기분 좋아"



19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백제아파트 앞 골목길에 조성된 정원에서 시민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다.

전남대 조경학과 학생들이 40여년 풍파에 노후한 광주시의 한 골목길을 싱그러움 정원으로 변신시켰다.

'전남대 LINC 3.0 사업단'은 1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광주시 서구 화정동 백제아파트 남쪽 골목길에서 '가든 어택' 행사를 열었다.

전남대 조경학과 학생들과 전남대 조경 및 지역계획 연구실(LARPL) 연구원들은 이날 폭 4m, 길이 60여m의 노후한 골목길에 정원을 조성했다. 백제아파트 앞 골목은 지난 1983년 아파트 준공 이후 지난 40년 동안 방치돼 있던 곳으로, 경사가 심하고 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 왕래가 적은 곳이다.

이곳은 '게릴라 가드닝'을 통해 탄생한 '반짝 정원'이다. 게릴라 가드닝은 단기간, 일시적으로 정원을 조성해 지역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퍼포먼스형 행사다.

정원 조성에는 지역 조경 관련 업체인 팔레트 그라운드, 유니베르, 마더스 컴퍼니와 전남대동아리 '그린스위치', '비어가든'도 동참했다.

이들은 아스팔트 길에 흙과 바크(나무껍질)를 쌓아 제주도산 희귀 식물 '죽절초', 울릉도 자생종 '섬국수나무' 등을 심고, 곳곳에 꽃과 역사 풀을 심은 화분을 배치했다.

폐철수막을 재활용하고 속에 낙엽을 채워넣은 빈백과 건설폐자재 등을 재활용해 만든 화분

등 친환경적인 소품들도 정원에 설치됐다. 청년 꽃판매업체 '따숨'을 비롯한 지역 베이커리·카페 업체도 동참해 소규모 판매 부스를 열고 핸드드립 커피와 차, 꽃다발 등을 판매했다.

정원에서 요가 강좌, 클라이밍 강좌, 국악 공연 등 프로그램이 이어지자 인근 주민들도 하나둘 정원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아이 손을 잡고 찾아온 엄마부터 휠체어를 탄 노인까지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 골목이 달라졌다"며 웃음꽃을 피웠다.

인근 주민 방수정(여·40대)씨는 "낡은 하수관 때문에 냄새도 심하고 조명도 없이 어두워 혼자 다니기 무서운 골목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산뜻한 정원으로 바뀌어 깜짝 놀랐다"며 "인근 차량도 통제돼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노는 것을 보니 신기하고 기분도 좋다"고 말했다.

행사를 기획한 권운구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도시가 일정 수준 발전하면 새로운 시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사라지고, 활력을 잃고 정체 되게 마련이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녹지가 가진 힘을 보여주고, 쇠퇴하는 공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이같은 인식 변화가 퍼져나가 광주시 전체의 도시 및 도시녹지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며 "특히 빈집과 빈터가 많은 백제아파트 일대를 바탕으로 광주의 도시 정원 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대 학생들은 행사 이후 정원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으며, 죽절초 등 식물들은 국립호남권식물자원관에 인계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축제, 일회용품 사용 너무하네

10월 39개 전 행사 일회용품 사용...3곳 중 2곳 분리배출함 없어 북구 '쓰리고 축제'·광산구 '모태보장' 일회용품 줄이기 '베스트'

광주에서 지난 10월 한달 동안 열린 39개 행사에서 모두 일회용품이 사용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지역 환경단체인 '광주환경운동연합'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광주지역 행사 39곳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39곳 행사장 모두에서 일회용품이 사용됐다. 35곳의 행사장에서 기타 일회용품이 사용됐고 비닐봉지가 30곳의 행사장에서 이용됐다.

일회용 수저를 사용한 행사장은 19곳이며, 일회용접시를 이용한 행사는 18곳에 달했다.

텀블러, 대화용기·에코백 사용여부와 분리배출함 설치 및 분리배출 안내 여부, 혼합배출 여부 등도 조사됐다.

전체 행사장 세 곳 중 두 곳(26곳)에는 분리배출함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이 때문에 일회용품과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이 혼합된 채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2019년 전국 최초 '광주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별도의 별칙 규정이 없어 이처럼 여전히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시가 지원하는 모든 사업의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 문구를 기재하고 사업 집행 후 일회용품 구입 예산은 모두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구 운암3동의 '쓰리고 축제'와 광산구 주민 플라마켓인 '모태보장' 행사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 베스트 행사로 선정됐다. 이 행사에서는 일부 일회용품을 사용했지만 배출량이 적었으며 현수막을 활용한 테이블보 등 재활용품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전남 평년 기온 회복...24일부터 추위

첫눈이 내린 광주·전남 지역이 23일까지 평년기온을 회복하다가 다시 추운 날씨를 보일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20~22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23일 차차 흐려져 24일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19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의 20일 아침최저기온은 0~7도, 낮 최고기온은 13~17도를 보이고 21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1~7도, 낮 최고기온은 16~18도에 분포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20일부터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 최고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15도 내외의 큰 일교차가 발생하겠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에는 대륙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7도 가량 떨어져 추운 날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찬 대륙 고기압이 따뜻한 서해를 지나며 눈구름대가 발달해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